

石塔相輪部仰花

慶州昌林寺址附近出土

하는 鳳凰의 正面을 彫飾하였다. 筆者는 佛國寺 釋迦塔의 仰花와의 實測 比例에서 昌林寺址廢塔의 仰花로 推定함과 同時에 同廢塔을 三層으로 復元考察하기 위한 하나의 資料로 삼고자 하는 바이다.

(慶州博物館에 收藏되었다)

는 것이다. 그러나 그 原位置는 알 수 없고 또 附近에는 昌林寺址를 비롯하여 南澗寺址、天恩寺址、識慧寺址 등이 연달아 있고 西쪽으로 조금 相距한 曇巖寺址가 있으니 어느 寺址에서 옮겨온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仰花는 四角柱 身위에 받침이 있고 그 위에 八瓣의 蓮花 가 있는 바 各面의 中央花瓣에는 光背 가 있는 坐佛을 一 軀씩 安置하였고 各隅의 花瓣에는 鳥翼 을 활짝 퍼서 飛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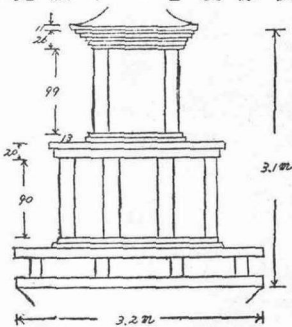
星州 修倫面 塔洞의 廢塔

慶北大博物館

高靈邑에서 星州行 道路를 따라 十一km 地點인 花岩洞에서 下車 北쪽 大伽川을 건너 二km 가면 星州郡 修倫面 甫月洞(塔洞)이 있고 그 北邊에 廢塔 一基가 있다. 二重基壇과 第一層의 塔身 屋蓋만이 現存하는 前面者는 甚하게 崩壞되었고 後者는 轉落되어 밭에 半以上 묻혀 있다.

이 現存塔材를 復元製圖한 바 그 規模는 慶州 佛國寺 釋迦塔보다 조금 작고 樣式은 同系의 것으로 推定된다. 比魯殘存部만으로도 素朴하면서 莊重端正함을 느끼게 하며 新羅石塔임을 곧 알 수 있다.

이 塔의 建立因緣이나 所屬寺院은 알 수 없으나 塔周邊에는 瓦片과 礎石 등이 散在하고 溪川에서는 磔자리가 있는 石塊가 注目되는 바 塔의 規模로 미루어 寺院



縮圖 1/50 m

도 컸으리라 하고 생각될 뿐이다. 이 寺院은 洞里口傳에 壬辰亂 때 破壞當 時의 遺跡임을 추측할 수 있음에 비추어 믿을 만하다. 現在 아나보이는 二層塔身 以上은 地勢와 洞里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밭에 埋沒 되어 있지만 알을까 생각된다.

尙州 化寧의 石佛

秦弘燮

尙州邑에서 六十里 高地帶에 位置한 尙州郡 化寧面所在地 部落에 東



西로 二軀의 石佛이 있다. 이 佛像들은 部落 北쪽 골짜기에 서 옮겨온 것이라고 하며 佛像이 彫刻된 이 돌을 下馬碑라고 부르고 있다. 이 골짜기를 「佛堂谷」이라고 하니 必是 寺址가 있었으리라고 짐작된다.

높이 三〇七cm, 두께 四四cm 幅 一三二cm의 岩石에 높이 一三二cm의 菩薩立像을 彫刻하였다. 頭部는 特別 顔面이 磨損이 매우 甚하고 眉間に 生生한 彈痕이 보인다. 寶冠은 三面冠같이 보이며 正面에는 化佛이 있다. 兩耳가 길게 보일 뿐 顔面은 分別할 수 없을 정도로 磨滅되었으나 그 輪廓은 豊滿함을 알 수 있다. 목에는 가는 三道가 있으며 胸前에 瓔珞을 달았다. 右手는 어깨까지 들어서 外掌하고 拇指와 人指를 대고 있으며 左手는 胸前에서 上掌하고 있다. 衣紋은 두 팔에 걸쳐서 下行하는 數線이 있는 外에는 左에서 右로 내려오는 數條의 斜線으로 表現되었고 右端에서 鑄狀을 이루었다. 두 발은 발끝이 양쪽을 向하고 있다. 背光은 굵은 二條의 陰刻線으로 圓形 頭光을 나타내고 頭光 下半에서 시작하여 역시 二條의 陰刻線으로 岩石의 周像을 따라 밑까지 身光이 表示되었다. 다시 頭光 上部에는 火炎文이 表現되었다. 따라서 岩石은 그대로 光背를 이루고 基本은 舟形이나 頭光과 身光이 連結되는 位置와 火炎文이 시작되는 位置는 背光의 輪廓을 따라 잘 갖추어 만들었다. 頭光 身光 안에는 아무 裝飾이 없다.

衣紋處理에서 古式을 엿볼 수 있으나 全體는 平板의이며 法衣가 두꺼워서 下體는 全히 나타나지 않는다. 頭部는 圓滿하나 身部는 造形이 鈍하다. 頭光 위의 火炎도 纖弱하다. 그러나 拙作은 아니며 顔面이 남아있

었다면 相當히 優雅하였을 것이고 胸部나 두 손의 彫刻은 불만하다. 이 佛像이 部落으로 들어오는 東쪽 길목에 東向하여 세워 있어 이 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고개를 넘어 내려오면 첫눈에 띄게 되는 것은 매우 印象的이었다. 製作年代는 高麗初期로 推定된다.

서울市內의 石造光背二座

黃 壽 永

日帝時 古代寺址에서 搬出된 高古한 擧身光背石二座가 民間에 保存되고 있다. 모두 原所在地는 알 수 없으나 傳統樣式을 보이는 貴重한 遺品으로서 注目할만 하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城北洞 全盛弼氏宅庭園①

火焰二重輪光으로서 高一三二cm 廣幅 一一〇cm 下幅 六三cm의 完品으로서 下端이 매우 緊縮되었다. 頭身光으로 區分되었는데 頭光은 八瓣單蓮文으로 圓形을 이루었고 그 周邊에 唐草文이 있으며 다시 그 곳부터 唐草文帶가 左右로 내려와서 身光을 區劃하였고 外緣을 돌아서 火焰文이 彫刻되었다. 表面의 彎曲도가 크고 中央에는 佛身과의 連結을 위한 一孔이 貫通되었는데 아담한 形態와 流麗한 彫法에서 羅末麗初의 佳作으로 推定된다. 群山에서 運搬되었다고 傳할 뿐이다.

(2) 서울特別市鍾路區嘉會洞 陸芝修氏宅庭園②

이것 또한 坐佛의 擧身光背로서 (1)에 比하여 大形인 바 舟形光背의 洗鍊된 樣式을 보이며 彫飾은 더욱 華麗하다. 左右와 上部가 缺失되었으나 原形은 짐작할 수 있다. 頭光으로서 雙條重圈이 있어 큰 子房을 가진 八瓣蓮花紋이 있고 內外間帶에는 蓮花唐草文이 彫刻되었는데 蓮花紋과 內圈의 中心이 垂下된 樣式을 보인다. 다음에 이 頭光으로부터 左右로 雙條의 花文帶가 派出하였고 周緣에는 火焰文이 高彫되었는데 그 中에는 同形의 化佛坐像 九軀가 左右에 各二, 頂上部五로 配置되어 있다.